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3. 16 (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영끌·빚투 어쩌나..은행 주담대 상단 6.5% 넘었다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H0AW2M

5대 시중은행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0~6.504% 수준으로, 지난 1월 16일 대비 약 두 달 사이 상단이 0.207%p, 하단이 0.120%p 상승
세계적 금리 인하기 종료 전망에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치며 가계대출 금리가 급증한 모습

금융위, '이란 전쟁 피해' 중소기업 대출에 면책 원칙 적용

한국경제 https://zrr.kr/Sfxn63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시장안정프로그램 확대 회의를 열고 최근 자금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점검
이 자리에서 금융회사들은 중동 지역에 수출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당 기업 대출 등에 대해 면책을 요청했고 금융위가 이를 수락

성과급 자율 삭감 한계… 금융당국 '클로백' 법제화 검토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2voU5W

금융당국이 금융사고를 낸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보수환급제도)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
지난해 4대 금융그룹의 임직원 성과급 삭감이 전무한 가운데 클로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지주 지배구조 법안에 성과급 '환수' 명시 및 이연기간 늘리는 방안 검토

삼성출신 변리사를 은행이 왜…"될성부른 기업에 대출"

매일경제 https://zrr.kr/wuMPQL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가 계속 강화되면서 각 은행들이 외부 전문인력 채용을 늘리고, 생산적 금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여신 부문의 조직 개편도 단행
경기 불황으로 대출을 내어주고 싶어도 내줄 기업을 찾기 힘든 상황이 되자 좀 더 많은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심사를 더 정교하게 해 여신을 받아갈 회사를 늘리자는 취지

DN솔루션즈·SK에코플랜트 등 IPO 비상…자금조달 플랜B 찾아야

서울경제 https://zrr.kr/qh08FB

정부가 상장 기업의 자회사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기로 한 것은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명확한 IPO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
자회사 IPO에 의존해 자금을 확보해온 산업계는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

개미 이달들어 벌써 17조 담아…月최대 순매수 가나

서울경제 https://zrr.kr/WUBKKR

중동 지정학적 긴장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액이 이달 들어서만 17조 원을 초과
과거 개인이 급등 종목에 추격 매수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지수 급락 구간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는 흐름이 반복

보험, '양적 경쟁'서 '질적 혁신'으로… 체질 전환 요구 직면

한국보험신문 https://zrr.kr/5tUIpr

국내 보험산업이 외형 성장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소비자 신뢰 회복과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기반으로 한 '질적 전환'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
금융당국은 소비자 중심 감독 체계와 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 구조를 안정적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

"시책 환수기간 연장" 불가피하나… 보험사, 차익거래금지 강화에 셈법 복잡

보험저널 https://zrr.kr/sKemRS

3월부터 보험차익거래금지기간이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보험업계의 시책 환수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
현행 24개월 환수체계로는 제도 변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

토스, 스테이블코인 기반 '화폐 3.0' 시대 연다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YjQQig

토스는 실물 화폐(1.0)와 전자 화폐(2.0)를 넘어 프로그래머블 머니와 스테이블코인이 주도하는 '화폐 3.0' 시대로의 전격적인 전환을 선언
인공지능(AI)와 결합한 '프로그래머블 머니'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오프라인 접점 확대에 대한 공격적인 목표도 공개

"클래리티 법안, 4월까지 통과 안되면 2026년 가능성 희박"

디지털투데이 https://zrr.kr/aHkMKt

미국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4월까지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2026년 통과 가능성이 극히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
미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은 4월까지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 논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신 미국 시민권 증명법(SAVE America Act)이 우선 처리 예정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